



Pray for Rohingya

EXPECTANTLY SOWING

돌아갈 본향

로힝야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2022년 10월 2일

우리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온 외국인, 나그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떠난 땅을 생각하는 거라면 이미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소망하는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브리서11장 13-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설상가상(雪上加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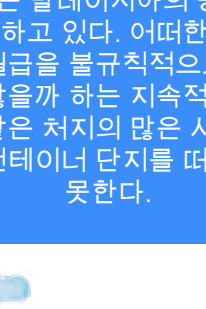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미얀마의 로힝야족을 향한 박해는 그들이 갈 수 있는 곳 어디로든 흩어지게 했다. 우리는 전세계 2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그들을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평화와 안식을 바라며 도망쳐온 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많은 로힝야족은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송환을 향한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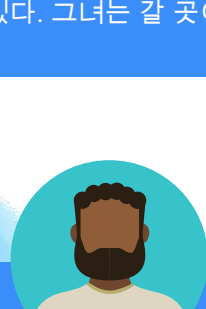
지난 해 미얀마 쿠데타 이후 그곳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경제적인 혼란에 빠졌고 대부분의 지역은 내전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한 송환회담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비록 민주연합정부가 로힝야족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례 없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군부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이는 머나먼 꿈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로힝야족은 이 땅에서 가장 홀대와 미움을 받는 민족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하늘 시민권을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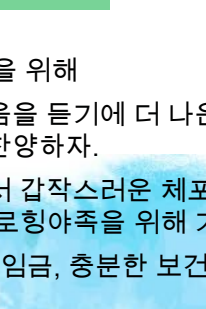
자랄(23세)은 말레이시아의 공사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어떠한 계약서도 없이 아주 적은 월급을 불규칙적으로 받고 있다. 불잡하지는 않을까 하는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비좁은 컨테이너 단지를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비바(17세)는 매일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그 집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해왔고 그 집의 어머니에게는 구타를 당한다. 로힝야족이기 때문에 경찰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녀는 갈 곳이 없다.



마무드(56세)는 방글라데시의 북적대는 난민캠프에 있는 그의 거처 앞에 앉아 있다. 그는 2017년에 미얀마를 탈출할 때 다리에 총을 맞았다. 국경 너머에 있는 라카인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가 겪은 폭력에도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바람은 고향 집에 돌아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미나라(35세)는 서구권 국가에서 망명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운 좋은" 로힝야족이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그녀는 우울하다. 새로운 언어,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 추운 날씨로 고생하고 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녀의 친척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하지만 이 영상통화는 그들을 더 보고 싶게 만들 뿐이다.

기도 제목

해외에 망명한 로힝야족을 위해

- 비교적 안전하고 복음을 듣기에 더 나은 장소로 로힝야족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체포, 착취, 학대 속에 갇혀 견뎌내고 있는 많은 로힝야족을 위해 기도하자.
- 안전과 보호, 공정한 임금, 충분한 보건 진료, 교육의 기회를 위해 기도하자.
- 향수병, 우울증, 두려움 가운데 정신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자.
-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자.

미얀마에 남아 있는 로힝야족을 위해

- 라카인 주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 미얀마에 남아 있는 로힝야족의 안전을 지키시고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자.
- 평화로운 방법으로 폭력이 사라지고 부당한 정부의 행패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그들의 고향으로 곧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 미얀마의 로힝야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에게 다가가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 주시도록 기도하자.

천국을 소망하는 로힝야족을 위해

- 로힝야족에게 영원한 거처, 시민권, 심지어 자녀의 권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 물질적인 필요보다 더 깊은 수준의 평안과 주님께 속하고자 하는 영적인 간절함과 열망을 위해 기도하자.
- 로힝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 모든 곳에서 로힝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개인적인 간증, 친절한 행동, 성경자료들의 생산과 배포 등을 위해 기도하자.



더 많은 정보는 :

pray4rohingya.org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해 주세요

http://pf.kakao.com/_TxcBqs or QR 코드